

강진군,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강진군이 최근 군민의 생활 개선과 현장 문제 해결에 기여한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을 선정했다.

이번 우수사례는 각 부서에서 추천한 사업을 대상으로 주민 체감도, 창의성, 지속가능성,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했다.

최우수 사례는 ‘효심이 프로젝트’다. 농촌 어르신 삶 가까이 생활복지를 더한 의미를 가진다.

‘효심이 프로젝트’는 농촌 고령화에 대응해 돌봄, 영양, 위생, 안부 확인 등을 하나로 연계한 생활복지사업이다. 거점 경로당을 중심으로 고기밥상데이와 마을 공동행태방을 운영해 어르신들의 식생활과 위생환경 개선에 힘썼다.

그 결과 경로당 317곳에서 어르신 9,380명에게 영양 지원을 했다. 월평균 114명, 252채의 세탁물을 대상으로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농촌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돕는

성과를 거뒀다. 우수 사례는 ‘강진 청년주택 판을 키우다, 50호에서 60호로, 150억에서 245억으로’이다.

강진군은 청년·신혼부부와 산업단지 근로자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주택 사업을 확대했다.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계획을 지역 여건에 맞게 재구성하고,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주민·의회·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를 통해 국·도비 95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총사업비를 150억 원에서 245억 원으로 늘리고, 주택 공급 규모도 50호에서 60호로 확대했다. 사업비 전액을 외부 재원으로 확보해 군 재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주거정책과 인구정책을 연계한 안정적인 정주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낮추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한편, 외부 자원 확보를 통한 지역 맞춤형 주거정책의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



강진군청 전경 사진

/강진군 기획홍보실 제공

목포시, 국회서 서부권 의대·병원 신설 촉구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사진

/목포 시청 제공

목포시와 지역 국회의원, 시의회가 국회를 찾아 서부권 국립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립을 촉구했다. 목포시는 지난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요구했다.

최근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 논의가 결렬됐지만 서부권의 36년 의대·대학병원 유치 염원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의대 신설 신청 절차와 선정 방식을 조속히 확정하고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전남지역 의대와 대학병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목포시는 서부권에 많은 도서가 위치해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만큼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강성희 목포시장은 의료격차 해소와 서부권 의대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성태 기자

함평군, “소중한 생명 살리는 작은 나눔”...사랑의 헌혈 행사 성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이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과 함께 사랑의 헌혈 행사를 열고 따뜻한 생명 나눔을 실천했다. 함평군은 23일 “2026년 3분기 함평군 사랑의 헌혈 행사”가 지난 21일 보건소와 함평축산농협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헌혈 행사는 여름 휴가철과 방학 등으로 헌혈 참여가 감소하는 시기에 안정적

인 혈액 공급에 힘을 보태고,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함평군민과 공직자 44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소중한 혈액을 기증하며 생명나눔을 실천하고 혈액 공급 안정화에 힘을 보탰다.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생명을 살리는 헌혈의 의미를 되새기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도 힘을 보탰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

액원은 헌혈버스 운영과 채혈 등을 지원하며 원활한 헌혈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왔다. 심화섭 함평군 보건소장은 “무더운 날씨와 휴가철에도 생명나눔 실천을 위해 헌혈에 동참해 주신 군민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헌혈이 혈액수급 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익명의 영암군민, 다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따뜻한 손길

영암에서 일하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자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군민이 병원비 200만 원을 지원해 따뜻함을 전하고 있다.

지난 4월 영암에 입국해 농촌 일손을 돕고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모이숙림(25) 씨는 이달 초 일상생활 중 뜻하지 않은 사고로 부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다. 농작업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어서 관련 의료비 지원을 받기 어려웠고, 보험금 청구에 앞서 퇴원 때 병원비를 먼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갑작스럽게 큰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모이숙림 씨를 위해 동료 근로자들도 조금씩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한 군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기부자는 지난 15일 병원을 찾아 병원비에 보태달라며 200만 원을 전달하고 자신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군민의 도움으로 치료를 마친 모이숙림 씨는 지난 19일 무사히 퇴원했다. 지역사회의 따뜻한 마음이 큰 힘이 됐다.

/김기철 기자

무안군, 군민감사관 조례화...청렴행정 강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무안읍 새마을부녀회(회장 양복순)는 지난 20일 회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무안읍 축협하나로마트 사거리부터 무안제일병원 뒤편 도로변 일대까지 ‘깨끗한 거리 만들기’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여름 휴가철과 무더위로 유동인구가 늘어나는 시기에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도로변과 주변 환경을 꼼꼼히 살피며 방치된 생활쓰레기와 무단 투기된 폐기물 등 50L 봉투 기준 약 25대 분량의 쓰레기를 집중 수거했다.

특히 차량과 주민 통행이 많은 도로변을 중심으로 구간을 나눠 평소 눈에 잘 띄지 않는 곳까지 정비하며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

/서용운 기자

신안 도초도, 폭염·가뭄 이겨낸 올해 첫 벼 수확

신안군 도초면은 21일 관내 궁항리 일원 농가에서 2026년 첫 벼 수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첫 수확에 나선 최중완 씨 농가에서 조생종 벼 0.8헥타르(ha)를 수확했다. 도초도는 781헥타르(ha)의 농경지에서 연간 4,000여 톤의 쌀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7%가량을 차지하는 조생종 벼는 일반 벼보다 한 달가량 빠르게 수확된다.

특히 올해는 기록적인 폭염과 극심한 가뭄으로 농업용수 확보 및 작물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철저한 용수 확보 노력과 농가의 정성이 더해져 마침내 값진 첫 수확의 결실을 보게 됐다.

현장에서 벼를 수확한 최중완 씨는 “타들어 가는 가뭄과 유난히 뜨거웠던 폭염을 이겨내고 무사히 자라준 벼가 대견하고 고마울 따름”이라며 소회를 전했다.

/박성태 기자

